

차세대 연구환경 구축 위해 'e-Science' 프로젝트 가동
-정부 향후 6년간 총 1천27억원 투자

연구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연구활동인 e-Science의 환경을 구축하는 '국가 e-Science 구축사업'을 4월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과기부가 발표했다.

국가 e-Science구축사업은 연구원이 국내외에 위치한 연구장비, 연구인력, 첨단정보를 자신의 연구실에서 직접 활용하면서 연구하는 'e-Science'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차세대 연구환경을 일컫는 것으로, 2001년부터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후발국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e-Science 환경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 e-Science구축사업은 향후 6년간 총 1천27억 원을 투자해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e-Science 환경을 구축하게 되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e-Science 환경구축에 필요한 총 22개 공통소프트웨어(SW) 중 9개의 공통SW를 모듈형태로 자체 개발하고 이외의 13개의 SW는 도입·개선해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신약후보 발굴 성공확률은 100~1천배, 2009년까지 슈퍼컴퓨터 공동 활용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2조8천800억 원, 자원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중복투자 방지로 연간 900억 원 절약 등으로 조사돼 연구생산성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12명의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 e-Science 구축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직접 SW를 이용해 할 수 있는 과제공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부, 올해부터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 착수
-연간 30억 원씩 최대 5년간 지원

그 동안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해외 우수 연구개발(R&D)센터 유치사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또 연간 3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과학자가 6월 중 선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1일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 해외 우수R&D센터 유치 촉진방안 △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 △ 첨단 IT플렉스 조성계획 △ 기술무역구조 개선방안 △ 해양과학기술(MT)활성화를 위한 2005년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R&D센터 유치 촉진방안은 각 부처별로 다국적 기업과 외국 공공연구기관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에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그 현황을 점검하고 범부처적인 종합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은 과기부가 작년 9월에 확정안바 있는 '국가최고과학자 관리방안'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기술자를 선정하여 특별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올해부터 국내·외 한국인이나 한국계 과학기술자를 최대 10명 이내에서 연 1~2명씩 선정하여 5년간 매년 30억원 내외의 연구비와 시설비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고과학자는 각급 과학기술 관련단체에서 추천된 후보들의 연구업적 등을 심사·평가하여 후보자군(50여 명)을 구성한 후 한국과학재단에 구성될 최고과학자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2005년도 최고과학자는 오는 5월 16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아 6월 중에 선정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부(www.most.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노종합팩센터' 서비스 본격 개시

우리 나라 나노기술연구의 핵심 기반시설인 나노종합팩(Fab)센터(소장 이희철 KAST 교수)가 지난 3월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원(KAST)내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



'나노종합팩센터' 준공식 장면

가동에 들어갔다. 나노팹센터구축사업은 개별 연구주체가 확보하기 어려운 고가의 나노연구 장비를 설치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역별로 5개의 센터가 건설중에 있다.

팹센터 중에 제일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나노종합팹센터'는 지난 2002년에 착공되어 그 동안 건물 및 청정실(Clean Room) 설계·공사, 조직 및 운영체제 구축, 장비구매 등을 거쳐 건물착공 1년여만인 2004년 12월 팹시설을 완비하고 장비설치 및 안정화 작업을 거쳐 서비스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에서는 나노종합팹센터에 구축된 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추가장비 구입과 아울러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벤처창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종합연구지원시설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공계 채용비율 늘린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의 시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채용목표제와 관련해 채용 목표치를 '최근 3년 동안의 채용비율 평균치보다 해마다 5%씩 늘리는 방안'으로 하는 시안을 마련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공계 채용목표제는 올 상반기부터 직원수 30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예정으로 채용목표를 이룬 기관엔 기관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고 최종안은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2005년 과학기술표어

- '함께하는 과학기술 다가오는 선진한국'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2005년 과학기술표어로 '함께하는 과학기술 다가오는 선진한국'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을 통해 과학기술표어를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1천692편이 접

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함께하는 과학기술 다가오는 선진한국'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하였고, 그 외에 우수작 4편,佳作 5편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표어는 올 1년 동안 4월 과학의(날)달 및 과학 관련 행사의 홍보표어로 사용케 하여 일반국민들에게 과학에 대한 희망과 친근감을 심어주게 된다.


*최우수상 (1편)-함께하는 과학기술 다가오는 선진한국

*우수상 (4편)-생활에서 과학을 과학에서 미래로/ 과학기술 그 중심에 미래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과학기술 함께하는 밝은 미래/ 꿈을 현실로 미래를 희망으로

*佳作 (5편)-과학기술 중심사회 도약하는 한국경제 /과학의 꿈 미래로 과학의 힘 세계로/ 과학의 힘 아름다운 내일입니다/ 과학기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또 하나의 도약 사이언스 코리아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 공식 출범

한국과학재단(이사장 權五甲)은 국가 대형·원천 연구개발지원 사업인 국책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4월8일 국책연구단을 공식 출범시키는 개소식을 가짐으로써 1조 원을 예산 집행하는 국가 연구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 동안 과학재단이 수행했던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의 일부(총 1천470억 원 규모)를 작년 12월15일부로 교육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으로 이관하였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했던 국책연구개발사업(총 6천269억 원 규모)을 금년 1월 31일부로 인수함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지원신청에서 결과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관리행정체제가 디지털화되고 과학재단이 구축한 연구과제 선정에서 연구비카드 지급까지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혁신적 서비스 체제로 국책연구과제 연구자의 지원서비스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기관별로 운영·관리되었던 연구성과 관리체계도 통합되어 국가 연구개발성과 지표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향후 더욱 선진화된 연구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정리_ 미디어팀